



## 밤바다의 유혹

gguri kim



어두운 밤, 대한민국의 한적한 해변에 달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미라는 화려하고 세련된 비키니 차림으로 모래사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매혹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 카락을 살랑입니다.



그녀는 젖은 모래 위를 우아하게 걷습니다. 물에 반사된 그녀의 실루엣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는 춤처럼 보입니다.



클로즈업된 그녀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가득 찬 황홀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어둡고 고요한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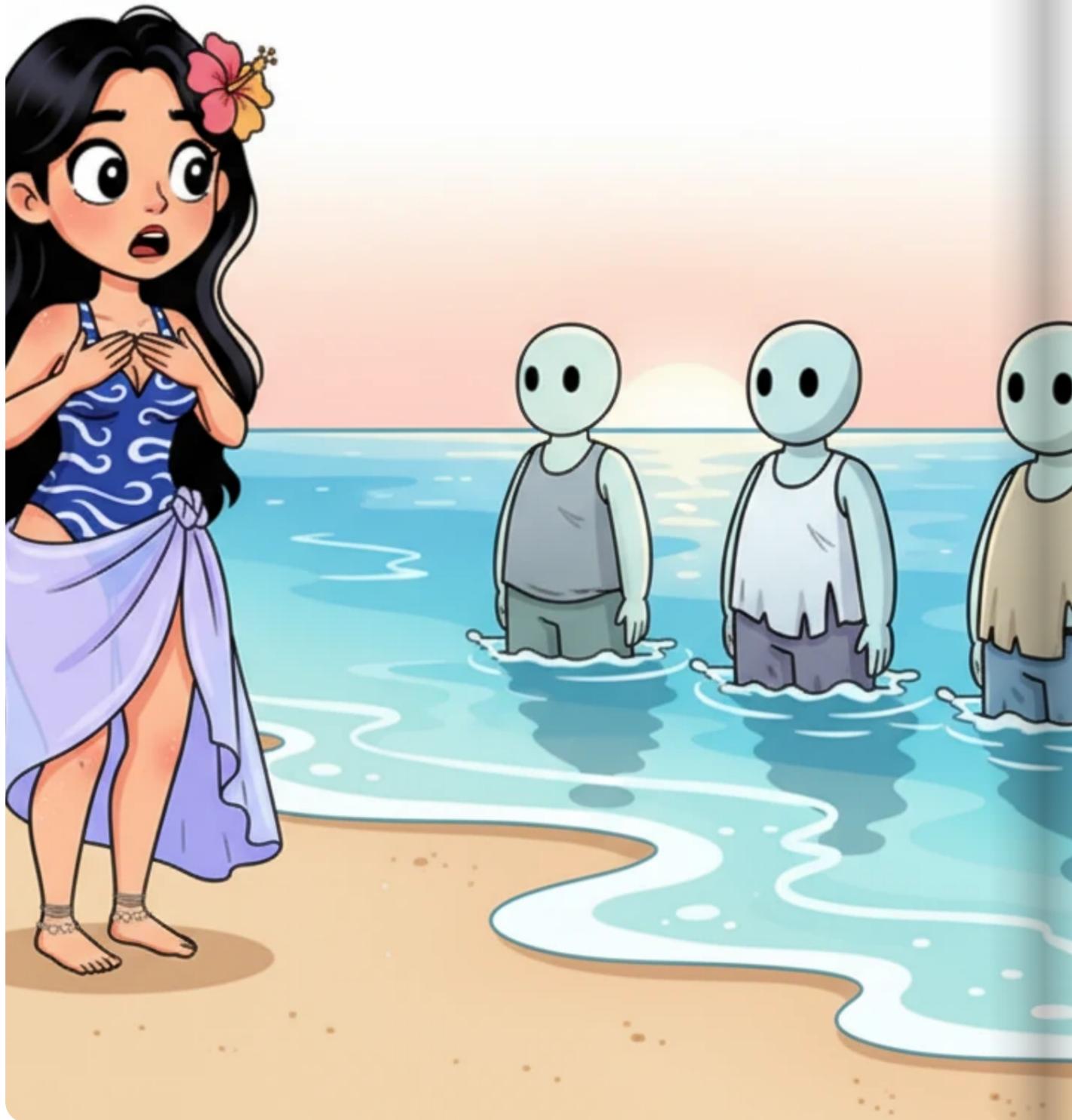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미라는 순간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그녀의 매혹적인 표정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선으로 향합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물거품 사이로 희미하게 서 있는 형상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 형상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의 유혹적인 자세는 어느새 스멀스멀 기어오는 공포감에 자리를 내주고, 형상들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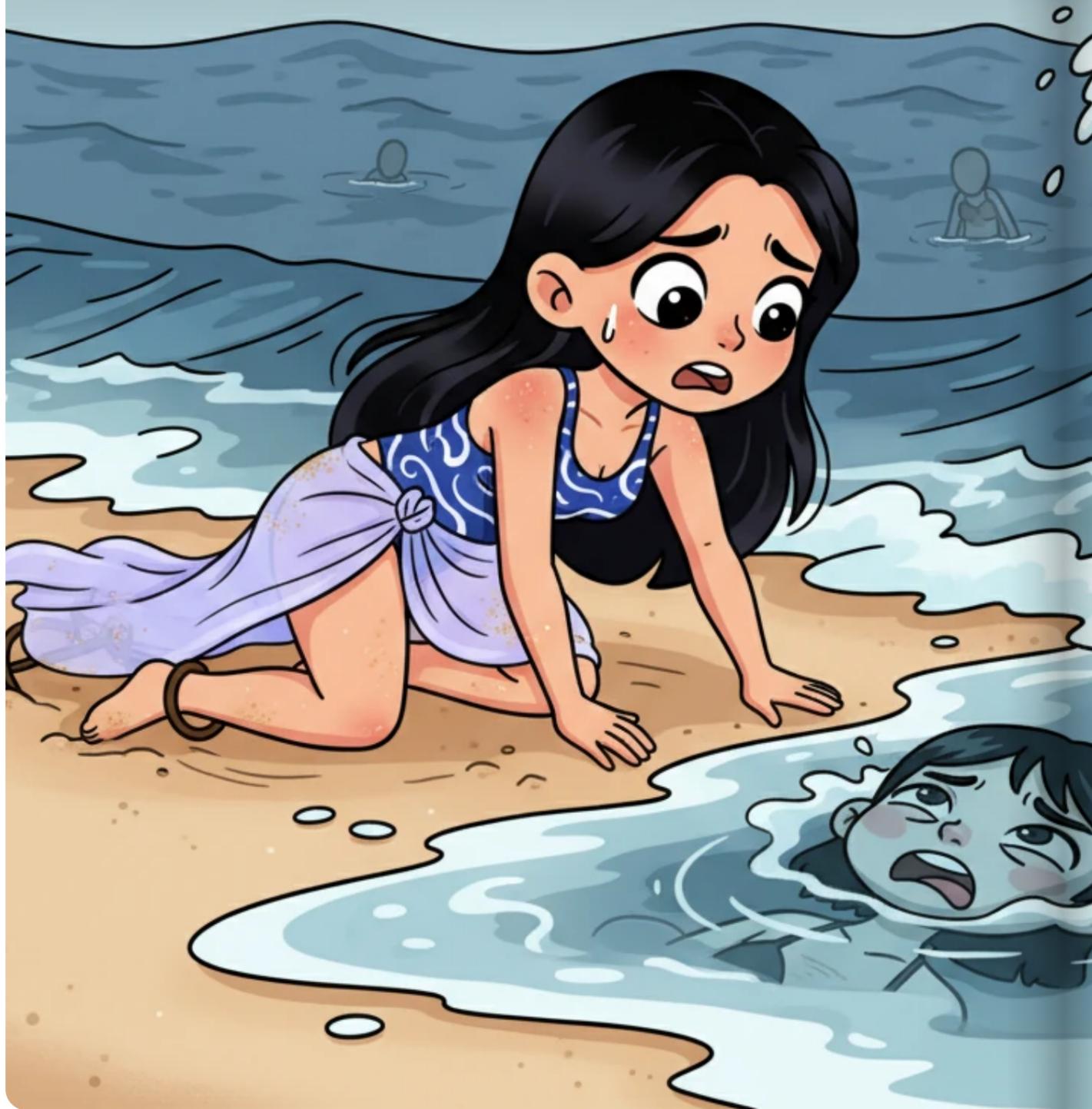
숨이 턱 막히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얇은 파도 속에 반쯤 잠겨 조용히 서 있는 창백하고 물에 불어난 시체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텅 빈 시선은 수평선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는 산산조각 나고, 눈앞에 펼쳐  
진 끔찍한 광경에 그녀는 말없이 경악합니다.



그녀는 뒤로 휘청거리며 모래사장에 주저앉습니다. 한때 매력적이었던 달빛 아래 해변은 이제 침묵하는 죽음의 섬뜩한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라가 필사적으로 기어가려 애쓰는 순간, 그녀는 발이 걸려 넘어져 모래에 쓰러집니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시체 중 하나에 닿는데, 물에 일그러져 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없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